

Friedrich Hirzebruch (1927-2012)의 명복을 빌며

양재현 (인하대학)

독일 본에 있는 막스-플랑크 수학연구소의 초대 소장이었던 Hirzebruch 교수가 지난 5월 27일에 별세하였다. 나는 Hirzebruch 교수를 1982년 버클리에서 처음 보았다. 그 당시 MSRI의 초대 소장이었던 Chern (陳省身, 1911-2004) 교수의 초청으로 그가 MSRI에서 힐베르트 모듈러 곡면 (Hilbert modular surface)에 관한 강연을 했는데, 나는 이 강연을 들었다. 강연이 끝난 후에 Ichiro Satake¹⁾ (1927-) 교수가 질문을 하며 자기와 동갑이라고 말하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았다.

나는 1994년 1월-2월의 두 달 동안 막스-플랑크 수학연구소에 초청되어 즐겁게 연구하는 가운데서 그를 자주 만나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었다. 그 당시 그는 거의 매일 출근하였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정수론 세미나 전인 12시 30분경에 초청연사와 참석자들이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하는데 이 점심식사에 그는 거의 참석하였다. 그는 젊은 수학자들을 격려하며 공동연구를 하도록 권장하였다. 귀국 며칠 전에 그의 연구실에 가서 그에게 최종보고서를 건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나에게 점심을 한턱 내겠다며 함께 점심을 하고 싶은 사람을 추천하여 달랐다. 그래서 Maxim Kontsevich²⁾를 추천하였다. 귀국 이틀 전에 그가 데리고 온 두 명의 수학자들과 함께 다섯 사람들이 점심을 하며, 이런 저런 이런 흥미로운 대화를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대화중에 나는 “한글이 지구상의 모든 언어 중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아름다운 언어”라고 말했더니, 그와 그가 데리고 온 수학자를 포함하여 세 사람이 믿기지 않는 듯이 어리둥절하였다. 실은 그들은 한글이 어떤 언어인지 전혀 몰랐다. 그런데 나의 이 말을 Maxim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그의 부친이 한국어학을 연구하는데 종종 그에게 한글의 우수성을 말해 주었다고 한다. 그 당시에 그의 부친이 진주에 있는 경상대학에 3년간 초빙되어 강의하며 연구하고 있다고 하며, 나에게 틈이 나면 아버지를 만나보기를 권했다. 귀국 후에 틈을 내어 경남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손진우 교수와 함께 그의 부친을 경상대학교 교수아파트에서 만났다. 그의 모친이 요리하여 준 음식을 먹으며 그의 부친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그의 부친은 우리말을 유창하게 구사하며 Maxim과 그의 형에 대해 자세히 말해주었다. 나의 기억에 의하면 형은 미국에서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여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 Maxim 이 어려서부터 수학에 흥미를 가지며 수학재능을 발휘하였으며 물리학에도 관심을 많이 가졌다고 말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아들 사랑을 늘어놓았다. 불행히도 그의 모친은 전혀 우리말을 못했다. 그렇지만 그녀는 대충 눈치 채며 즐거워하였다. 기억에 의하면 우리 세 사람이 술도 마셨던 것 같다, 무슨 술을 마셨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마도 맥주이리라.

Hirzebruch는 1927년 10월 17일 독일 Hamm, Westphalia에서 태어나 1945-1950년 기간 Münster 대학에서 공부하며 박사학위를 받았다. 1952-54년 동안은 프린스턴 고등연구소에 초청되어 연구하였으며, 1955-56년 동안은 프린스턴 대학의 조교수로 임용되었다. 1956년에

1) 佐武一郎 (1927-) : 일본 동경대학에서 박사학위 취득함. 시카고대학과 UC Berkeley 교수를 역임.
2) Maxim Kontsevich (1964-) : 1998년에 필즈상, 2012년에 Shaw 상을 수상한 러시아 수학자. 1999년에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였음, 현재 IHES 교수이고 마이애미 대학의 석좌교수임.

는 독일로 돌아와 Bonn 대학 교수가 되었다. 1981년에는 막스-플랑크 수학연구소의 초대 소장이 되었으며 1996년에 은퇴하였다. 1992년에는 유럽수학회의 초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는 1988년에 Wolf 상, 1989년에 Lobachevsky Medal, 1999년에 Einstein Medal, 2004년에는 Cantor Medal을 받았다. 1987년 회갑 때는 그의 논문집이 Springer 출판사를 통해 출판되었고, 2007년에 그의 80세 생신 때는 세계 각지에서 온 300여 명이 본에 와서 그의 80회 생일을 축하하여 주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인 20세기 후반에 1930년대에 나치 정권에 의해 붕괴되었던 독일 수학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힘썼던 행정력이 출중할 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 뛰어난 수학자이다. 한 때는 독일의 위대한 수학자 Siegel³⁾ 때문에 힘든 시절을 보내기도 하였다.

1997년 1월-4월의 4개월 동안 이 연구소에 다시 초청되었을 때는 거의 매일 그를 만났다. 이 당시에는 1월 한 달 동안 가족들과 함께 지내며 로마, 베니스, 밀라노, 모나코, 니스, 파리, 하이델베르크 등지를 여행하였다. 2002년 1월에 독일의 Hamburg 대학과 Freiburg 대학에서 초청강연을 하고 Heidelberg 대학과 막스-플랑크 연구소를 방문하여 여러 친지들을 만났다. 본에서 Hirzebruch 를 수요일 정수론 lunch에서 만났다. 그 당시 그는 이미 은퇴하였지만 건강해 보였다. 2011년 4월과 5월에 약 한 달 반 동안 다시 막스-플랑크 연구소에 초청되었는데, 약 9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그를 만났을 때 나도 모르게 깜짝 놀랐다. 그 이유는 그는 등이 심하게 굽어져 있어 마치 곱사등이 노인 같았다. 연구소의 직원에 말에 의하면 약 1년 전에 넘어져 심하게 다치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 일주일 한두 번 정도 연구소에 나오는데 오후 4시경에 방문수학자들과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곤 하였다. 나도 몇 차례 그와 대화를 나누었다. 말하고 듣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그 후 1년이 경과된 지난 5월 27일에 이 세상을 떠났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이만 줄인다.

목동에서

2012년 6월 15일 (금)

3) Carl Ludwig Siegel (1896-1981) : 독일 베를린 태생, 위대한 해석적 수론학자. Frankfurt 대학, 괴팅겐 대학과 프린스턴 고등연구소 교수 역임.